

## 교과서의 시 다시 읽기

송문석\*

### <목 차>

1. 서론
2. 시 다시 읽기의 원리와 절차
3. 임종의 광경을 노래한 시 「울음이 타는 가을 강」
4. 인간 영혼이 머무는 대합실 옥체, 그 옥체의 죽음을 노래한 「사평역에서」
5. 성행위를 노래하고 있는 시 「운동2」
6. 결론

### 1. 서론

이 논의는 국어와 문학교과서에 있는 시 텍스트들이 의미를 새롭게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시를 사전적 의미가 아닌 시적 의미로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문학 교과서에는 교사가 시를 교육하거나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시에 대한 소개를 이해와 감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되어 있는 이해와 감상이 대부분 사전적 의미로 되어 있다. 사전적 의미로 시를 이해하고 감상하게 되면 작가가 시 텍스트에 부여한 개인적 의미 즉 정서를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시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시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공감하기

\* 제주대 강사, 문학박사

어렵다. 그러므로 시의 의미를 온전하게 수용하려면 사전적 의미를 벗어나서 새롭게 시적의미로 작품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시 텍스트가 함의하고 있는 정서를 온전하게 교육하기 위함이다. 시는 지식이나 사고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장르이다. 사전적 의미로만 제시된 시는 어떤 정서를 전달하는지를 구체화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에게 시를 통해 어떤 정서를 교육해야 할지가 막연해진다. 왜냐하면 시 텍스트가 지니는 정서의 체계를 파악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정서를 교육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학교과서에 제시된 시의 의미를 새롭게 규명하여 어떤 시적의미를 지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전적 의미가 아닌 시적의미를 부여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학생들의 수용 가능한 이해와 감상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는 이해와 감상의 구체적 방법도 제시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논의에서 텍스트는 해석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작가의 창작물을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기표는 개념이나 이미지가 부여되지 않는 표식의 의미로, 기의는 언어 사용자의 머릿속에 저장되었다가 기표에 부여되는 것으로 개념과 이미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그리고 텍스트는 원래 작가가 창작한 창작물을 가리키며 작품은 이를 해석한 내용의 의미로 사용한다.

이 논의는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실려 있는 박재삼의 <울음이 타는 가을강>, 곽재구의 <사평역에서>, 이상의 <운동>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논의하는 것은 이 텍스트들은 다른 텍스트에 비해 사전적 의미로만 이해되고 감상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사전적 의미로만 시가 이해되고 감상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독자나 시 해설가가 기표에 부여되는 기의를 사회적이고 관습적인 의미만을 부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회적이고 관습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은 사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일 뿐 정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은 아니다. 정서는 개

인적이며 주관적으로 부여된다. 그리고 시에서 이러한 정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의미가 아닌 시적 의미를 확인해야 한다. 시적 의미를 확인하는 것은 기표에 기의를 부여하는 방법적 원리가 있어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방법적 원리를 필자는 인지시학으로 정리하였으며 여기에 제시된 방법적 원리를 통해 문학교과서에 나타난 시의 시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sup>1)</sup> 아울러 이 논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시가 함의하고 있는 시적의미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준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 2. 시 다시 읽기의 원리와 절차

한 편의 시에 시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표에 결합되어있는 사전적인 개념과 이미지를 떼어내어야 한다. 그리고 사전적 기의가 아닌 새로운 시적 기의인 개념과 이미지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를 해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찾아낸 개념과 이미지 중 통사적으로 유용한 기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기표를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독자가 텍스트를 수용하는 머릿속 전 과정은 독자가 시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독자의 눈과 텍스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종이 위에 쓰인 검은 잉크 자국을 포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시각적으로 포착된 기표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이다. 기표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다양한 기의들을 검색하는 일이다. 세 번째는 이 다양한 기의들 중 텍스트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기의를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미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수용의 과정을 거쳐 드러나는 사전적 체계의 기의는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그것은 동일한 언어사회에서 하나의 기표에 따른 기의를

1) 송문석, 『인지시학』(푸른사상, 2004) 참조

반복적으로 학습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표와 기의 사이에 네트워크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면 기표와 기의는 자동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선택성이다. 손쉽게 설명한다면 하나의 단어에는 사회적 용례로 허용되는 많은 기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독자가 수용이라는 상황에서 특정한 문장 속에 놓이게 되면 독자는 자신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사회적 용례 가운데 통사적으로 유의미한 기의 하나를 기표와 관련하여 선택하게 된다. 그 결과 독자는 의미를 확정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소통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선택성이 잘못 작용하게 되면 소통은 어려워진다.

이러한 수용의 과정은 사전적인 체계에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시적 체계에서도 성립한다. 그 이유는 기표에 개념과 이미지가 결합되는 것은 자의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별 기호를 습득하는 과정을 엄밀하게 살펴보면 기표와 개념 그리고 이미지를 각각 학습하고 이를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듯이 시에서도 기표에 따른 개념과 이미지를 자의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에 나타난 기표에 특정한 기의가 결합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시 텍스트의 기표에 무작위적인 어떤 기의를 결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시적 기의를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기표자체가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시적기의로 매개할 수 있는 매개항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사전적 기의와 백과사전적 의미이다.

시 텍스트의 기표는 사전적 기의를 자동적으로 갖는다. 그리고 이 사전적 기의는 또 백과사전적 의미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문제는 이 백과사전적 의미는 다양한 의미를 서술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반드시 하나의 의미와 의미간의 일대일 대응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와 의미사이를 연결하는 허브(HUB)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즉 사전적 기의와 시적기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눈(기표)		
물이나 수증기가 공기 중에서 얼려서 내리는 것	하얗다, 깨끗하다	순수, 순결, 불면
	차가운 것, 시리다	고통, 시체,
	썰매를 타거나 장난을 한다.	
사전적 의미	백과사전적 의미	시적 의미

위에서 눈(雪)이라는 기표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많은 개념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 때 사전적 의미는 눈이라는 기표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문장 안에 놓이게 되면 특정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이 특정한 의미가 사전적 의미이다. 그렇지만 눈이라는 기표에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용례가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며 이 광범위한 용례가 백과사전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백과사전적 의미는 눈이라는 기표만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념이나 이미지와도 연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다른 개념이나 이미지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이 시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기표에 해당하는 시적의미는 다양하다. 이 모두가 특정한 시에서 시적의미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중 하나를 기표에 따른 기의로 연결하는 데 이 연결과정은 무작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통사적으로 유용한 의미로 연결된다. 이렇게 특정의미로 연결되는 것이 선택성이라면 통사적으로 유의미하도록 연결하는 것을 계열성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성과 계열성은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에만 소통은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한편의 시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택성과 계열성을 고려한 의미부여가 필요하다.

### 3. 임종의 광경을 노래한 <울음이 타는 가을 강>

기표에 사전적 의미만을 부여하거나 선택과 계열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작품은 사전적 의미만으로 이해되거나 아니면 주관적인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함으로써 텍스트와 관련을 상실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텍스트가 함의하고 있는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어지고 후자는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무관한 정서를 작품의 정서로 오독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즉 특정한 기표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여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사고나 정서와는 상관없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박재삼의 <울음이 타는 가을 강> 전문이다.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삼아 따라가면  
어느 새 동성이에 이르러 눈물나고나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을 보겠네

저것봐 저것봐  
네보담도 내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끝에 생긴 울음까지도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가는  
소리 죽은 가을강을 처음보겠네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가을 강」 전문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실려 있는 이 시는 여러 참고서나 문제지에서 재 인용되고 있다. 그리고 교과서 문제지 참고서의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그것은 이 시를 모두 사전적 의미체계에서 해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이 시

를 해설하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시는 제삿날을 맞아 시골 큰집으로 가던 길에 눈앞에 저녁노을이 물든 가을 강이 펼쳐진 것을 바라보면서 느낀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가을 강을 바라보면서 어린 시절 첫사랑의 슬픔과 그다음에 겪게 되는 사랑의 고통을 회상하면서 강의 흐름을 통해 자신의 살아온 세월을 회상하고 이를 통해 비애와 고통 그리고 무상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해설을 보면 저녁노을이 물든 가을 강을 보면서 느끼는 슬픔이 어떤 슬픔인지 왜 슬픔을 느끼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마음도 한 자리에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는 어떤 때인지, ‘친구의 서러운 사랑이야기’가 무엇인지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은 어떤 강인지를 알 수 없다. 이는 전체적으로 사전적 체계에서만 의미부여가 이루어진 결과라 하겠다. 그렇게 되면 시는 전체적인 문맥상황 즉 계열성을 벗어난 의미부여로 일관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것은 시적의미체계를 가진 시를 사전적 의미체계로 나열할 경우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텍스트가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은 시가 사전적 의미체계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체계를 벗어나 시적체계에서 의미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1행에서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를 보자. 이 표현은 우선 비문법적 양상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용례로 허용되는 표현으로 간주 될 수 있다. 그것은 ‘몸도 한자리에 못 앉아 있는 몸일 때’와 ‘마음이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를 때’라는 사고와 정서의 계열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표현은 결국 정서의 측면에서 보면 ‘안절부절 하여 어쩔 줄 모를 때’라는 시적 의미로 해석된다.

2행에서 친구의 서러운 사랑이야기는 사전적 체계에서 보면 친구의 사랑이 슬펐음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이루지 못한 사랑이나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

졌다는 의미로만 읽혀지게 된다. 그러나 백과사전적 의미로 확장하게 되면 친구의 서러운 사랑이야기는 단순한 이별의 의미가 아니다. 여기서 사랑 이야기가 만남과 헤어짐이 이야기라면 '서러운 사랑이야기'는 헤어지더라도 못 잇는 이야기 또는 헤어지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또는 헤어져야 하는 이야기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백과사전적 의미 가운데 헤어지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져야 하는 이야기는 다시 사별(死別)이라는 시적 의미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친구의 서러운 사랑이야기는 친구가 죽었다는 이야기 즉 친구의 사망소식이라는 시적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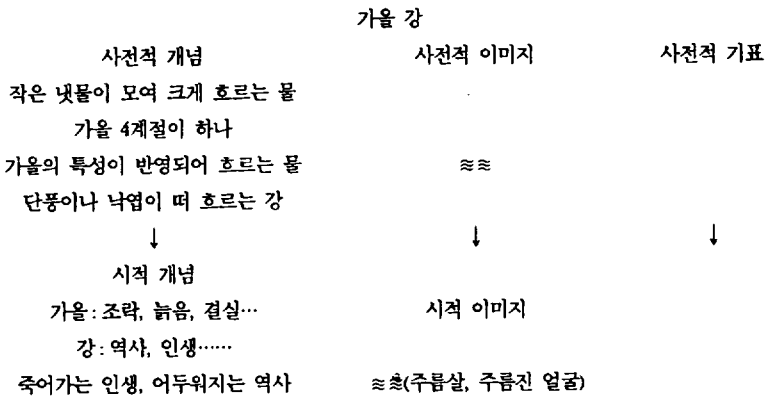
3행의 '가을 햇별'을 백과사전적 체계를 거쳐 시적 체계로 확장시켜 보면 '과일이나 곡식을 잘 익게 만드는' 백과사전적 의미에서 '결실'이라는 시적 의미로 확장되거나 '은근히 따깝다'라는 백과사전적 의미에서 '심연의 고통'이라는 시적 의미로 확장된다. 그러므로 가을 햇별로나 동무삼아 따라간다는 것은 심연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렇게 되면 3행은 2행과 결합하면서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마음속 깊은 곳에 고통으로 간직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된다.

4행을 보면 '어느 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고나'로 되어 있다. 이때 등성은 산등성으로 산의 등줄기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산의 꼭대기를 지났을 뿐 아니라 산을 거의 다 내려왔다는 의미로 화자 자신이 절정기를 지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화자 자신이 어느새 늙어서 죽음을 바라볼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눈물나고나는 이러한 화자 자신이 늙어버린 것에 대하여 느끼는 인생의 대한 슬픔인 것이다. 이는 앞의 내용과 결합하면서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살다보니 나도 어느새 죽음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슬픔을 느낀다로 읽혀지게 되는 것이다.

2연은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을 보겠네'로 되어 있다. 이때 제사는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기리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



만의 의미는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큰집에 모여 휘황찬란하게 불을 밝히고 추모하거나 기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을 보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가을 강이다. 일반적으로 가을은 조락이나 사멸이라는 시적 의미를 지닌다. 반면 강은 흐르는 것으로 역사나 인생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강'의 백과사전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이미지체계로 확장시켜 보면 강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을 강에서 강의 이미지 체계를 시적으로 확장하다보면 거기에는 주름살이라는 기의가 나타난다. 이 강은 가을이 가지는 시적개념인 조락 늙음 죽어가는 의미와 결합하여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 즉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나 그 얼굴에 나타난 주름살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즉 강이 가지는 물의 흐름이라는 이미지와 늙은 사람이 가지는 주름살이라는 이미지가 형태적으로 유사한 것을 바탕으로 투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을 보겠네'는 슬픔이 복받치는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얼굴(임종)을 지키겠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결국 2연은 죽은 다음 휘황찬란하게 추모하거나 기리는 것보다도 슬프지만 죽어가는 얼굴(임종)이라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3연에서도 일관된 흐름으로 나타난다.

저것 봐 저것 봐  
네보담도 내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도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가는  
소리 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겠네.

3연의 1행 '저것 봐 저것 봐'는 어떤 대상을 보라는 말이다. 그 대상은 앞 연에서 제기한 죽어가는 사람이 얼굴이며 그 얼굴에 있는 주름살이다. 그러므로 이 행의 의미는 '임종하는 사람이 주름살로 가득한 얼굴을 바라보라'는 의미라 할 수 있다. 그 주름살로 가득한 얼굴에는 놀라운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3연의 2행에서 4행까지 드러난다.

2행에서 4행까지의 내용은 '너보다도 나보다도 /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 사라지고 /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도 녹아나고'로 들어난다. 그 임종을 맞이하는 얼굴은 너보다도 나보다도 어린 시절의 청순하고 깨끗한 모습을 더 많이 잃어버리고 어른이 되면서 겪게 된 사랑의 고통도 다간직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즉 3연은 주름진 얼굴에 대한 진솔로 어린 시절의 청순함은 사라지고 젊은 시절의 사랑의 아픔을 다 간직한 채의 의미로 5행의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나와 가는'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미칠 일은 어느 '하나에 집중된'의 의미로 오로지 가야하는 한 가지 길의 의미를 지니고, 바다는 넓고 깊은 세계로 죽음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 즉 5행에서는 오로지 임종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6행에서 '소리 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겠네.' 조용히 죽어가는 얼굴을 그것도 처음으로 보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결국 화자는 시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안절부절 하던 중 친구들이 하나 둘 죽었다는 고통스런 소식을 들으면서 살다보니 어느새 자신도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음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화자는 죽은 다음에 휘황찬란하게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도 슬픔이 복받치지만 죽어가는 얼굴(임종)을 보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화자는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 속에는 우리들 보다 더 많이 어린 시절의 청순함을 잃었으며, 어른이 된 후 겪게 된 사랑의 고통은 우리들 보다 더 많이 내면으로 삭여내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조용히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았다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 결국 이 시는 시적 체계로 의미를 확장해 보면 제삿날을 맞아 시골 큰집으로 가던 길에 눈앞에 저녁노을이 물든 가을 강이 펼쳐진 것을 바라보면서 느낀 슬픔을 노래하는 시라는 사전적 의미를 벗어나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느끼는 인생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는 시라는 시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전적 의미체계에서는 알 수 없었던 슬픔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어떤 슬픔인지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적 체계만을 고집한다면 슬픔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독자는 자신이 경험한 수많은 슬픔 중 죽음과 관련이 없는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슬픔을 부여해버리게 되고 이는 독자와 텍스트와의 관련성을 상실한 작품을 만들어 내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작가와 독자와의 정서적 소통을 단절시키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비평가나 교사는 시 텍스트를 수용함에 있어서 사전적 체계에 묶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작품의 해석과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이 해석과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는 작가와의 소통이 불가능한 즉 학생들에게 수용될 수 없는 소통단절의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4. 인간 영혼이 머무는 대합실 육체, 그 육체의 죽음을 노래한 <사평역에서>

사전적 체계에 묶여 버린 학생이나 독자 그리고 교사나 비평가로부터 시가 함의하고 있는 정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사전적 체계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자동화 되어 있는 '기표-기의'의 관계에서 "기표-기의"-백과사전적기의-시적기의'를 찾아내고 '시적기의-기표'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점이기도 하다.

다음은 광재구의 <사평 역에서>이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툭밥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그믐처럼 멎은 줄고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줌의 툭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연기 속에서

씨름싸투 눈꽃은 쌓이고  
 그대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낮설음도 뻘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장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곽재구, 「사평역에서」 문학(상), 블랙박스, 237쪽.

이 시에 대해 교과서의 소개나 해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시는 고향으로 가는 마지막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추억과 회한을 쓸쓸한  
 역 풍경을 배경으로 하여 그려내고 있다. 대부분의 시가 그렇듯이 이 작품도 서사  
 적 구성이 아니라 쓸쓸한 역사 풍경을 바라보는 시인의 한순간의 감정이 시적 상  
 상력을 통한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마치 영화의 장면들을 연상시키는 이 시는  
 객관적인 제재들을 마음 속 깊은 상처와 그리움으로 감싸서 독특한 서정적 경지를  
 만들어 낸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일이나 주변풍경, 주위 사물 등을 가지고  
 상상하게 하거나 써보도록 하기에 좋은 시다.

이 시에 대한 해설 역시 사전적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되  
 면 이 시는 추운 겨울 난로를 켜 놓은 대합실에서 오지 않는 막차를 기다리  
 는 가난하고 쓸쓸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풍경을 그려낸 풍경화 수준에 머무  
 르게 된다. 이렇게 보면 그리웠던 순간들은 어떤 순간인지 왜 툼밥난로가 유  
 리창 마다 타고르는지, 그리고 툼밥난로라는 소재를 왜 동원했는지 등을 제  
 대로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이 시에 쓰인 시어의 의미를 사전적 체계에서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가 함의하고 있는 시적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어에 결합되어 있는 사전적 의미들, 엄밀하게 말한다면 독자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사전적 의미를 해체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백과사전적 의미를 통해 시적 의미로 확대하는 인지 작용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만 의미는 재구성 될 것이다.

우선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에서 막차는 마지막으로 오는 차, 마지막 차로 타고 가는 차, 마지막으로 가는 길, 어디론가 가기 위해 타는 마지막 차의 백과사전적 체계에서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타고 가야하는 차 즉 저승으로 가는 즉 임종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그리고 2행을 보면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로 되어 있다. 대합실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간 차를 타기 위해 모이는 공간 환송의 공간, 떠나는 사람을 배웅하는 공간이라는 백과사전적 의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영혼이 한순간 머무는 공간이라는 시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는 곧 육체의 의미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합실이 차를 기다리는 공간에서 영혼이 머무는 공간이라고 보는 것은 인간의 육체는 영혼이 머무는 대합실이라는 시인의 인식이 작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 대합실은 영혼이 머물다 떠나갈 장소라는 점에서 이제 임종을 맞이할 육체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대합실이 임종을 맞이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합실 밖은 죽어가는 사람을 둘러싼 사람들로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 즉 죽음에 비껴서 있는 의미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을 지칭하게 된다. 그리고 송이 눈에서 눈은 크게 두 가지 백과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하얗다이고 다른 하나는 차갑다이다. ‘하얗다’라는 백과사전적 의미에 주목하고 이를 시적 체계로 확장하게 되면 눈은 ‘순수’라는 시적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차갑다’라는 백과사전적 의미에 주목하고 이를 시적 체계로 확장하게 되면 눈은 ‘고통’이라는 시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렇지만 눈이 시적 의미로 ‘순수’와 ‘고통’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이들이 모두 계열적으로 적합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죽음과 관련된 의미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순수보다는 고통의 의미

를 지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의 의미는 영혼이 떠날 육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밤새 슬픔이나 고통을 겪게 된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3행의 '흰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의 의미를 쉽게 규정해 줄 수 있다. 그것은 흰보라는 죽음의 의미로 수수꽃은 이별의 의미로 눈시린은 슬픔의 의미로 유리창은 마음의 시적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흰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는 죽음과 이별을 생각하는 슬픔 마음들마다의 의미로 읽혀지게 된다.

4행에서 주목할 시어는 툇밥난로이다. 사전적 의미체계와 백과사전적 의미체계로 이를 살펴보면 툇밥은 나무를 자르면서 생긴 부스러기를 가리킨다. 이는 ~하면서 남긴 부스러기를 매개로 인생을 살면서 남긴 부스러기라는 의미로 넘어가면서 추억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난로는 방을 데우는 도구, 따뜻하게 하는 것, 무언가를 데우는 것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난로는 툇밥과 결합하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긴 추억이 마음속에서 떠오르고 있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어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추억이 회상되고 있었다는 의미로 읽혀지게 된다. 즉 죽어가는 사람과 맺은 관계의 많은 편린들이 마음속에서 떠오른다는 것이다.

5행과 6행은 그믐처럼 멎은 줄고/ 멎은 감기에 쿨러이고이다. 사전적 의미로만 보게 되면 (대합실에 앉아서) 차를 기다리는 사람의 일부분은 줄고 있고 멎은 감기에 쿨러거리며 기침하고 있다. (대합실에서 앉아서) 조는 사람, 감기에 쿨러 거리는 사람은 결국 인생의 고달픔을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러나 '그믐처럼 멎은 줄고/ 멎은 감기에 쿨러이고'를 시적 의미로 확장시켜 보면 멎은 죽음에 대한 절망으로 캄캄함을 느끼고 멎은 고통에 겨워 울먹이고의 의미로 읽혀지게 된다. 이러한 시적의미는 다음에 이어지는 행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줌의 툇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로 계속 이어짐을 볼 수 있다. 그리웠던 순간들은 막차를 타고 떠나갈 사람과 맺은

과거의 내용이 추억으로 환기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한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는 그 사람과의 추억을 슬픔으로 환기한다는 의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즉 나도 그 사람과의 추억을 회상하였다는 의미인 것이다.

결국 육체는 인간의 영혼의 머무는 대합실이라는 작가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이 시는 대합실 즉 육체에서 인간의 영혼이 떠나갈 생의 막차인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과 그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추억을 노래한 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5. 성행위를 노래하고 있는 시 〈운동〉

시가 사전적 체계 내에만 있지 않다는 것은 시가 일반적인 문법규칙을 파괴하고 있다는 데서 그 특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문법규칙은 의미의 배열규칙만이 아니라 기표의 나열규칙에서도 나타난다. 기표의 나열 방식이 일반적 문법규칙을 파괴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전적 체계의 의미도 파괴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상의 다음 작품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일층(一層)우에있는이층(二層)우에있는삼층(三層)우에있는옥상정원(屋上庭園)에 올라서남(南)쪽을보아도아무것도없고북(北)쪽으로보아도아무것도없고해서옥상정원(屋上庭園)밑에있는삼층(三層)밑에있는이층(二層)밑에있는일층(一層)으로내려간즉 동(東)쪽에서솟아오른태양(太陽)이 서(西)쪽에떨어지고동(東)쪽에서솟아올라서(西)쪽에떨어지고동(東)쪽에떨어지고동(東)쪽에떨어지고동(東)쪽에서솟아올라하늘북판에와있기때문에서계(時計)를꺼내본즉서기는했으나시간(時間)은맞는것이지만시계(時計)는나보담도짧지않으나하는것보담은나는시계(時計)보다는 늙지아니하였다 고아무리해도믿어지는것은필시그럴것입에틀림없는고로나는시계(時計)를내동맹이 쳐버리고말았다.

- 이상, 「운동」 문학(하), (주)블랙박스, 55쪽.



이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난해한 시로 알려져 있다. 난해하다는 것은 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시가 일상적인 언어의 규칙인 일반문법규칙으로는 정보를 처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사전적 의미만을 부여하게 되면 의미가 계열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앞뒤의 일관된 흐름을 알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 시는 의미의 흐름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의 규칙이 띄어쓰기도 무시되어 있을 정도로 문법규칙을 많이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독자로 하여금 수용의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포착을 어렵게 한다. 즉 텍스트와 시각사이에서 글자를 분할하고 이를 효과적인 의미단위로 수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점은 이 작품을 더욱 난해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독자들이 띄어쓰기가 무시된 텍스트를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언어습관인 문법규칙에 맞도록 분할하여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흐름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체계를 벗어나 시적체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적 체계에서 시를 바라보고 시어의 의미를 부여하게 시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부여하거나 찾아내기 어렵게 되거나 아니면 텍스트와의 관련성을 상실한 매우 주관적인 의미가 부여되게 된다. 이는 이 시에 대한 교과서의 해설에서도 그래도 나타난다.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운동>은 근대적인 도시 공간의 대표적 상징으로 제시되는 백화점의 공간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단순하게 반복되어 올라간 건물은 근대문명이 도달한 꼭대기의 무의미함을 보여준다. 작가는 1층 2층 3층 옥상정원으로 백화점 건물을 추상화시키면서 그 의미를 근대적인 도시 구조로 확대한다.

(문학 하 교사용 지도서)

사전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시에 대한 해설은 일층 이층 삼층 그리고 옥상정원을 실제 건물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또 이것을 삼층 백화점 건물을 추상화시킨 것으로 보면서 그 의미를 근대 문명이 도달한 꼭대기의 무의미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것은 3층 건물이 근대문명을 나타내는 상징성을 문맥적으로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텍스트와 관련이 없는 의미부여가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는 일층에서 태양이 동(東)쪽에서 솟아올라서(西)쪽에 떨어지고에 주목하고 이를 공간구조의 해체나 시간구조의 해체로 설명하는 경우와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는 사전적 측면에서만 보면 일층에서 이층 이층에서 삼층을 거쳐 옥상 정원까지 오르고 다시 옥상정원에서 1층까지 반복하는 운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태양은 동에서 서로 계속 반복 운동하는 공간적 인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시간과 공간의식의 해체라고 본다면 화자는 일층에서 이층으로 이층에서 삼층으로 순차적 공간이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일층과 이층이 역적되거나 이층과 3층이 역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품 어디에도 이러한 일층과 이층이 역전되는 내용은 없다.

그래서 다시 3층 밑에 있는 2층 밑에 있는 1층 밑에 있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동에서 서로 반복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머리의 좌우를 남과 북이라 한다면 성행위의 운동은 동쪽과 서쪽의 방향이다. 이는 무의식의 욕망이 변용되어 나타난 것으로 일층과 이층 삼층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며 옥상정원은 나무나 풀과 같은 형상을 지닌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은 신체다. 배를 1층이라고 한다면 배 위쪽에 해당하는 가슴은 2층이 될 것이고 가슴위의 얼굴은 3층, 그리고 얼굴위에 머리는 옥상정원의 의미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용을 토대로 보면 이 작품은 여성과 결합하기 위해 그 교점을 찾고 있는 모습이 시의 앞부분에 드러난 것이다. 1층 밑에 있는 곳을 찾은 화자는 동에서 서로의 반복 운동을 하고 있다. 이 시에 드러나는 시계는 여성의 상징이다. 시계가 여성의 상징이면 시간은 남성의 상징이다. 시계의 형태적

유사성은 원이지만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침은 1과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결국 이 작품의 의미는 성행위의 전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성행위를 정상적인 의식으로 드러내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인다.

#### 4. 결론

이 논의는 박재삼의 <울음이 타는 가을강>, 곽재구의 <사평역에서>, 이상의 <운동>을 대상으로 이 텍스트들이 지니는 시적의미를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시적의미를 찾아보는 방법은 텍스트에 진술되어 있는 기표는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사전적의미를 갖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이런 점에서 기표와 사전적 의미와의 관계는 학습을 통해 자동화된다.

자동화는 기표에 따른 기의의 관계를 고정불변의 것처럼 수용자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여 텍스트에서 시적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시적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시적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너무 자유로워지면 일상적인 소통을 어렵게 만들 여지가 커진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소통은 기표에 따른 기의를 고정시켜 이를 사회구성원 전체가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는 사고와 정서에서 사고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에서는 유용하지만 자신의 정서를 전달하는 체계에서는 유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런 개인적 정서를 전달하는 체계가 '기표-기의'의 사전적 관계를 해체하고 '기표-기의' 간에 시적 기의를 관계를 부여하는 것이다.

사전적 관계를 해체한다고 해서 '기표-기의'의 사전적 관계가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전적 관계가 인정되어야 백과사전적 지식이 유지되는 것이며 이 백과사전적 지식이 유지되어야 시적 기의의 부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각각의 시를 살펴보면,

<울음이 타는 가을강>에서 사전적 의미는 제삿날 큰집으로 가다가 가을

강을 보면서 느낀 인생의 슬픔을 노래한 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사전적 의미를 벗어나 시적의미로 보게 되면 울음이 타는 가을강은 얼굴에 깊이 파인 주름살을 갖고 있는 임종에 다다른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인생과 죽음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사평역에서>의 사전적 의미는 고향으로 가는 마지막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추억과 회한을 쓸쓸한 역 풍경을 배경으로 하여 그려내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벗어난 시적의미로 살펴보면 육체는 인간의 영혼의 머무는 대합실이라는 작가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이 시는 대합실 즉 육체에서 인간의 영혼이 떠나갈 생의 마지막 차인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과 그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추억을 노래한 시라고 할 수 있다.

<운동>의 사전적 의미는 근대문명이 도달한 꼭대기의 무의미함과 1층 2층 3층 옥상정원으로 백화점 건물을 추상화시키면서 그 의미를 근대적인 도시 구조로 확대한 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시적 의미는 신체의 특성과 형태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성행위를 노래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단행본

가와노 히로시, 진중건 역, 『예술·기호·정보』, 셋길, 1992.

구인환 외, 『문학 교수 학습 방법론』, 삼지원, 1998.

권혁준, 『문학이론과 시교육』, 박이정, 1997.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김이상, 『시교육론』, 육일 문화사, 1994.

김창원, 『시교육과 텍스트 해석』,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 레이제켄도프, 이정민·김정란 역, 『마음의 구조』, 인간사랑, 2000.
- 루디 겔러, 이기숙 역, 『기호와 해석』, 인간사랑, 2000.
- 박상희, 『생체 신호 처리 및 응용』, 에드텍, 1999.
- 송효섭, 『문화기호학』, 민음사, 1997.
- 송문석, 『인지시학』, 푸른사상사, 2004.
- 심재기 외, 『의미론 서설』, 집문당, 1985.
- 움베르토 에코, 김광현 역, 『해석의 한계』, 열린책들, 1995.
- 윤여탁, 『시교육론: 시의 소통구조와 감상』, 태학사, 1999.
- 이수련, 『한국어와 인지』, 박이정, 2001.
- 한스마이홀, 김준오 역, 『문학과 시간』, 문예비평신서, 1983.
- Roman Jakobson, 신문수 역,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 지성사, 1989

#### 논저

- 권오현, 「문학소통이론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2.
- 김윤정·김수정·정재범·남기춘, 「한국어 구문 중의성 해결과정: 정상인과 명칭성 실어증 환자의 구문정보처리 특성」,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1999.
- 김이상, 「시교육 이론과 방법론 연구」, 동아대 박사논문, 1991.
- 남기춘·김현택 이홍재·김동휘, 「ERP에 나타난 정상인과 실어증 환자의 어휘, 통사, 의미 정보처리의 단원성」, 『고려대학교 학술대회 발표논문 모음집』, 2000.
- 송문석, 「이해와 감상의 분리를 통한 현대시 교육방법 연구」, 『고교에서 시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03.
- 송문석, 「현대시 텍스트의 의미처리 연구 시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3호』, 예림기획, 2001.
- 이홍재·남기춘·김현택, 「한글 및 한자 단어 재인의 차이: ERP를 중심으로」, 『인지과학회 춘계 학술발표 논문집』, 1996.